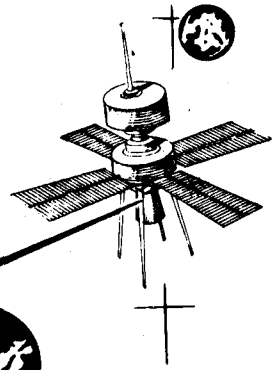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너무 유능한 축산지도자들

우리는 물질만 충족되면 유토피아는 저절로 건설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수지 안맞는 농업쪽에 투자를 하기 보다는 공장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결과 인구의 도시집중과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범죄형 사회를 만들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농업의 중요성은 식량을 자급한다는 것 외에도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농업의 발전위에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채를 갚고 고용의 기회를 늘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당분간 농업쪽에서 더 참아 주어야 하겠다는 주장을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나 재벌기업 쪽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식사회학적(知識社會學的) 한계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그 지위와 소속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농촌이야 어찌되든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내세우게 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일하는 학자들도 자기나름의 가치판단 기준과 관계없이 옳고 그른것을 판단하지 않고 연구비를 주는자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측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분노를 느껴 쇄통을 던지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실무자의 의견보다는 정책적으로 위에서 결정이 되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도 없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정해진 방향으로 활용되어 진다.

문제는 이들 테크노크라트(기술인)들이 대부분 미국 등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그 이론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시카코인들이 개발한 경제이론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시카코 사람들이 돈을 벌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이 발전한 영국에 유학하여 Ricardo의 비교우위론을 배워서 후진국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보다는 19세기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에 유학해서 F.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배워와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어느쪽이 옳은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테크노크라트들의 주장에 의

해서 농업의 생산기반이 파괴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경제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웬지 우리 농축산분야 지도자들의 능력이 뛰어나 지식사회학적 한계를 뛰어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예를들면 농축산업자를 걱정하기 전에 쇠고기 수입을 막다가 미국에게 301조의 보복을 받아 자동차등 공산품 수출이 안되면 어찌하나를 걱정하거나 축산분야에서 외환관리를 걱정하고 공업 서비스분야를 걱정하는것 등이다.

누가 양축가들이 돈벌어 부자되는 것을 걱정하고 그 방법을 연구한단 말인가?

지난 유성에서의 양계인단합대회 보고회에서 느낀 것을 적어 본다.



쉽게 행복한 쇠고기 수입

지난해 12월 16일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87년도 대미(美) 무역흑자가 100억불에 이른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미국의 무역적자가 1,700억불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국이 가난한 것이 자꾸 보도되니까 어쩌다 천사의 4촌쯤 되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연민과 착하고 마음약한 우리국민은 미국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이고 미국은 18,400\$(87년)로 우리의 6배나 잘살지만 미국과는 혈맹의

관계로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어야지 가만해 어려운 것을 보고 있어서는 의리상 안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미국을 도와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때 미국은 우리보고 쇠고기와 담배를 사주면 된다고 요구하였다. 축산인들은 깜짝 놀랐고 그간의 보도들이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세뇌용이 아닌가 하는 분노마저 느끼게 되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이 180°로 바뀌기 시작 하였다. 축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계속되었다. 그저 반대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반대한다는 결사반대란 프랑카드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으레 우리는 결사반대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지 정말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반대하기야 하겠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84년 소값 파동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었으니 사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마닐라 앞바다에서 1시간 대포를 쏘니 필리핀 사람들은 무서워서 얼른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미해병대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48시간이나 대포를 쏘는데도 우리 수군(水軍) 53명이 48시



간을 버티며 싸웠다. 보통 전투는 1시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53명이 끈질기게 48시간이나 버티었다.

당시 미해병대 사령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작은전쟁(little war)에서 미국은 승리 했으나 승리라고 할 수 없다. 기억하기도 싫은 전쟁이다.

한국수군은 무기도 없이 흙을 미국 해병대의 눈에 뿌리며 저항했고 생포하려 하니 절벽에서 바다에 뛰어 내렸다. 대개 이러한 기록이다. 흙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오니 싸울 수가 없다. 최후탄의 시조쯤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는 전통이 있는데 백제 멸망시 낙화암에서 3천궁녀가, 진주 남강에서 논개가 뛰어 내렸고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도서관 옥상으로 몰려갔다가 도서관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데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 분실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를 지난다든가 높은 건물로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반대하고 있는데 철딱서니 없는 일부 소비자들은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콩나물 보다는 싸고 야들야들해서 질기지 않고 맛도 좋다는데 언제쯤 들어오나 하고 쇠고기 수입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국에 신문보도를 보니 금년에 쇠고기를 15,000여톤 가깝게 수입할 모양이다. 역부족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것 같다.

강화도 수군의 후손들이 이렇게 쉽게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에 손을 들다니 하고 생각하니 양축가들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질 수 밖에 없다.

양축가의 힘을 빼는데는 국내 재벌회사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양축농민의 반발이 한창일 때 전경련 무역협회 회장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 쇠고기수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이어 심야토론에서의 심상준 회장의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개방이 필연적이라는 것과 H상사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에 이어 D재벌의 경제연구소장 이○○박사의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전업하면 될것 아니냐는 논리와 우리나라 농민을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국가가 보호할 수도 없으며 수출상사가 농민을 보호해야 할 이 유도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이들과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가 한팀(team)이 되어 한마음(spirit)으로 수입개방을 위한 작전을 전개하기 때문에 양축농민이 곤욕을 당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축산업계에 간디와 같은 지도자는 없는가? 간디는 영국으로 부터 옷감 수입을 막기 위해서 물레를 돌리기 시작한다. 물레돌리기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들 손으로 실을 뽑고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게되어 간디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사진을 예전에는 많이 보았었다. 이 물레운동은 아주 힘없는 운동같이 보였지만 영국 맨체스터공단의 불을 끄게 하였고 많은 실직자를 내어 유아 사망률까지 높아졌었다고 한다.

국내산 축산물먹기운동 이나 수입축산물 안먹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미국 축산업자의 실직이나 그들에 고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축산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다. **양기**